

# 극동의 경제발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출장  
세션에서 그 두 과

외국인 6 만명 이상  
전자비자로 극동 방문

신규  
프로젝트

2019년 5월

## 핵심주제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5월31일 forumvostok.ru

### 부랴티야 동방경제포럼 출장 세션에서 극동 발전 국가 프로그램 논의

울란우데에서 부랴티야의 극동 경제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동방경제포럼 출장 세션이 진행되었다. 토론 참가자들은 국가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경제발전의 획기적인 대책, 부랴티야 소기업 지원 선도개발구역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하였다.

<https://forumvostok.ru/news/role-of-far-east-national-development-programme-discussed-at-eef-regional-session-in-ulan-ude/>

2019년 5월30일 Regnum

### 치타 동방경제포럼 출장 세션에서 '극동핵심 프로그램'을 자바이칼 지방으로 확대 전망 논의

토론 참가자들은 자바이칼 지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토지개발 정책을 논의하였다. 지역정부에 의하면 지방 수도에 인접한 토지들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 및 개인주택 건설 목적으로 활용을 원한다.

<https://regnum.ru/news/2638140.html>

2019년 5월24일 Interfax

### 루스키섬의 관광 잠재력, 2019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



개발 프로젝트는 호텔, 요트클럽, 체육시설 건설을 포함한다. 향후 국제 마린톤, 쓰리애슬론, 달리기 등 대회들이 계획되어 있다.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에 의하면 2019년 안에 루스키섬 전체가 주 및 시의 소유로 전환된다. 루스키섬 인프라 개발은 주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1032524>

2019년 5월24일 Interfax

###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출장 세션에서 극동 관광 분야 발전 논의

제5회 태평양관광포럼의 일환으로 동방경제포럼 출장세션이 진행되었다. 행사에서 도구조바 러시아관광청장은 극동방문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전자비자의 기간을 8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세션에서 일본,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및 신규관광코스들이 논의되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view.asp?id=1032717>

2019년 5월8일 TASS

###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부라티아 공화국의 아태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투자잠재력 홍보 계획

부라티야는 천연자원 채굴 및 가공 산업, 섬유산업, 농산업, 관광업 분야들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미세닌 부라티야 공화국 정부 부총리에 의하면 해당 프로젝트들은 러시아 투자자들 외에 중국, 일본, 한국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젝트들이다. <https://tass.ru/ekonomika/6411174>

## 극동 국가 정책

2019년 5월27일 TASS

### 러시아정부, 아무르 메탄올 공장 건설에 49억 루블 투입 계획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연방정부 예산 49억 루블을 건설 예정된 공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음을 공개하였다. 프로젝트는 아무르주 스쿠보르디노 시의 철도석유터미널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생산능력은 연간 약 1백만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7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49억 루블도 투자된다. <https://tass.ru/ekonomika/6476182>

2019년 5월21일 TASS

### 극동지역 발전에 220억루블 추가책정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부라티야와 자바이칼 변경주의 사회 공공재, 교통 인프라 시설 건설과 연해주 재정간 보조금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 <https://tass.ru/v-strane/6452111>

2019년 5월21일 Interfax

### 외국인 6만명 이상 전자비자로 극동 방문

극동개발부에 의하면 비자간소화 제도 도입 이래 극동연방관구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15개국 31000명이다. 올해 초부터 2만개 이상의 전자비자가 발급되었으며 1만 6000명이 사용하였다. 18개국 국민들은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중국, 일본에서 많이 방문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1031317>

2019년 5월20일 Rossiskaya gazeta

###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쿠릴리' 선도개발구역 확장

러시아 정부는 4개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해당 선도개발구역에 추가 부지를 편입시켰다. 이는 관광, 건설, 수산물가공, 선박수리 프로젝트이다. 투자 총액은 6억 6000만 루블로 2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https://rg.ru/2019/05/20/reg-dfo/medvedev-vkliuchil-v-tor-kurily-novye-territorii.html>

## 극동 경제

2019년 5월15일 Interfax

### 루스키섬에 디지털 자산 센터 건립

관련 협약은 투자수출진흥청과 Amber Global Limited간 체결되었다. 센터는 극동 기업 파이낸싱과 극동산 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금융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제를 안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1029766&p=15>

2019년 5월2일 Interfax

### 캄차카에 신규 관광 클러스터 조성

러시아관광청이 캄차카 '트리 불카나' (3개의 화산) 공원 조성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 400억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중심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신규 관광객 17만명을, 2037년에는 46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원에 투입된 민간자본은 150억 루블이며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예측에 따르면 2024~2037년간 관광객 수 증가를 통해 1350억 루블 가량의 캄차카 변강주 재정수입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1027442>

##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9년 5월28일 RBC

### 가스프롬, 루스키섬에 LNG 엔지니어링 센터 개소 계획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루스키섬에 신규 엔지니어링 부서를 신설하여 LNG기술 개발을 맡길 전망이다. 가스프롬 마르켈로프 부회장에 의하면 부지선정과 필요한 서류작업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 앞서 2018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루스키섬에 러시아 대기업들의 엔지니어링 부서들을 신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https://www.rbc.ru/rbcfreenews/5ced2d5b9a7947c7b9bf71f6>

참고정보:

Roscongress 재단은 사회지향적 비영리 발전기관으로 최대 규모의 국제, 컨벤션, 전시 및 사회 행사 조직사입니다.



MONTHLY NEWS DIGEST

##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재단은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발전, 국익 홍보 및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현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분석, 구상 및 보도를 진행합니다. 또한 행정지원, 사업 프로젝트 추진 지원, 투자유치, 사회적 기업 성장 및 자선사업 지원도 제공합니다.

재단이 조직하는 행사들은 매년 195개국들로부터 8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모으며 Roscongress 재단 행사장들에 1만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활동합니다. 분석 및 자문 활동에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 2500명이 참여하며 75개국 대외경제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www.roscongress.org](http://www.roscongress.org)

동방경제포럼 조직사